

■ 전진농업 현장 10 무란포도농원 대표 최병혁 ■

# 개량비가림 포도시범 농가



“올해는 900평의 포도농장에서 6천 송이의 포도를 생산했지만 내년에는 1만 송이의 포도 생산이 예상됩니다.”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무란포도농원을 경영하는 최병혁(44·사진)대표를 만났다. 이 지역 토박이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최 대표는 일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고온장애, 비를 맞으면 포도 잎이 죽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뿌려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개량비가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

43년 국도변 천보산 지역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은 최 대표 한 사람이다. 따라서 인근에 입주한 공장들과 동네사람들에게만 팔아도 포도가 바닥이 난다. 올해도 외부로 유통은 꿈도 꾸지 못했다. 모두 동네에서 추석 2·3 일전에 모두 구매했다.

수목원작목반에 속해 있는 무란포도농원의 또 하나 특징은 특수차광망을 써 제조제를 쓰지 않는 점이다. 특수차광망으로 토지를 덮게 되면 풀이 자라지 않는다. 몇 번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

현재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소흘지회 회장으로 활동중인 최 대표는 자신을 복합영농인으로 소개한다. 5천여평의 논에 벼도 재배하고 있다. 또 인근 부지에 상가를 지어 임대사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복합영농인이라고 한다.

전에는 비가림을 하나로 했는데 반해 개량비가림은 두 개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무란포도농원을 경영하는 최병혁 대표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 개량비가림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한다.

교차하여 설치함으로써 비가림도 되고 환기도 잘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것은 잎손실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포도당도를 높여주는 등 고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최 대표는 내년에는 색깔포도도 재배하고 싶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하고 있다. 검은색

이 아닌 빨강색이나 보라색 포도를 상상하면 즐겁기도 하다. 소비자에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포도를 판매할 날로 멀지 않았다.

“후회는 없고 건강하게 살자”를 생활신조로 살아온 최 대표는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고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무란포도농원을 경영하는 최병혁 대표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 개량비가림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한다.

말했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1개월에 1회 구제역 방역활동은 봉사활동이다. 지역을 위해서다. 최 대표는 이장직도 수행했다.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네인구에 돌잔판도 설치했다. 동네이름을 난이 많은 지역이라서 무란

이라고 한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하루일과를 시작하며 늘 편안한 마음으로 일해 열중하는 최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편안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정신이 아쉽다. 편안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지론이다.

학교체육진흥회에도 참가하는 것은 자녀를 위함이다. 지역 방위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위함이다. 바르게살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함이다.

최 대표는 복합영농의 모델을 제시한다. 농사만 짓는 시대는 지났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 하나씩씩 사업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가경쟁력 제고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다.

최 대표가 우리나라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시골에서 어렵게 버는 돈을 지어지만 관료가 막막하고 정부수매가 끊긴 상태에서 농민에게는 공정신속을 위한 전용비 면제 등의 특혜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힌다.

혹시 지역을 위해 정치를 하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농협 이사를 선거에서 낙선한 선배가 있는데 요즘 얼굴보기 힘들다며 정치에는 관심없다고 일축하는 최 대표의 모습에서 좀더 무란포도농원의 밝은 내일을 엿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76

## 고래등

# 색다른 갈비 맛을 느낄 수 있는 갈비전문점



대표 우상준

개업1년 만에 차별화 된 양질의 음식제공으로 갈비의 명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고래등(소흘읍 송우리 129-1. 대표 : 우상준)은 최고급 1등급 고기만을 선정해 고객들에게 고기의 참맛을 제공하며 지역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고래등을 연상케 하는 큰 기와집이 찾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동시에 정겹고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하고 있는 모든 양념은 화학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천연양념만을 고집해 고객들이 직접 맛을 보며 알 수 있다고 한다.

고래등의 점심메뉴로는 고객 대부분이 고래등 정식을 찾은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이 무려무려 오르는 돌솥밥과 10여 개 이상 정갈하게 차려져 나오는 계절별 반찬들이 입맛을 돋우기에 부족함이 없고 어느새 밥 한 그릇은 게논 감추듯 사라진다.

또 정성을 다한 영양갈비탕과 전날 고품질 고기들을 위해 선지 해장국이 점심 식사로는 제격이다. 특히 불고기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있는 메뉴 중 하나이며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 맛과 담백한 육수 맛이 그 만이다.

신선도가 중요한 아재류는 그날 그날 필요한 양을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매일 아침 들여와 식단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고래등은 고객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감칠맛 나는 맛으로 승부하고 있다.

아울러 고래등은 개업당시 한 배를 탄 9명의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뜻을 같이하며 고객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친절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월2 회 정도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 최상품 고기 선정으로 고기의 참 맛 제공

## 화학조미료가 아닌 천연양념만을 고집

옛 고품양식과 현대양식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실내공간은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에 손색이 없고 고품스러운 분위기가 연출하고 있어 고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현재 고래등은 관내 축협에서 믿을 수 있는 고기를 엄선해 공급받아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거쳐 고객의 식단에 제공되고 있다. 주메뉴인 이등갈비는 최상급 고기를 저온에서 48시간동안 숙성시켜 아재, 과일즙과 천연양념을 사용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 때문에 누구나 즐겨 찾고 있는 인기메뉴다.

그밖에 생갈비와 고래등갈비 또한 23년 동안 갈비만을 취급해온 임종원 실장의 특유의 손맛과 노하우가 함께 해 고객들에게 깊은 맛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기는 선별과정이 제일중요하고 다음으로 고기의 숙성과정과 독특한 양념이 맛의 비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맛에 대한 평가는 고객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말한다. 또한 고래등에서 사용

운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토론했으며 고객중심의 음식점을 지향하고 있다. 우 대표는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점, 고객위주의 음식점을 지향하고 있으며 찾아주는 모든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한가지 반찬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며 “지금까지 두세번 정도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육식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관내 노인정이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년에 2회 정도 음식을 제공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고래등은 홀 이외에 단체손님들을 위한 다목적 룸이 3개정도 마련되어 있어 비즈니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고래등은 현재 양제정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오후 열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문의 : TEL 031)541-4125-6, HP 011)254-8938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시설채소 농가 체육대회

지난 15일 대전대 운동장에서 시설채소 농가 100여명이 모여 각 작목별 운동경기를 갖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이흥구 시의원, 심재호 가산농협장, 최병문 포천시 농업경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맞는 시설채소 연합회 체육대회는 시설채

소 농가들의 단합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산 작목회를 비롯한 송우 작목회, 일동 작목회, 영중·영북·포천 작목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체육행사는 오전 10시 가산과 송우 작목회의 축구 예선을 시작으로 여자7팀의 400M계주, 족구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 높은 성과



포천시가 지난 9일부터 7일까지 신북면(주)아도니스 호텔에서 개최한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에서 1억 3천만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 1억 3천만달러 이상 상담실적

포천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신북면(주)아도니스 호텔에서 개최한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를 통해 12일 현재 적어도 1억 3천만달러 이상의 상담실적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당초 이번 상담회에 해외바이어 20명, 관내 기업체 100개사가 참가해 약 1억 달러의 상담실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세계 11개국 26여명의 유수한 바이어들과 151개 기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상담실적도 목표치

를 훌쩍 뛰어넘는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국제무역상담회가 성공작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담회에 참가한 한 나전철기 업체 대표는 “생산하는 제품이 값이 비싸고 홍보도 부족해 해외관료 개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상담회에서 만난 바이어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제품의 유럽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 상담회를 철저히 평가 분석한 뒤, 내년에 보다 나은 양질의 무역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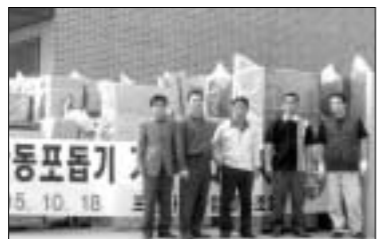
## 북한동포돕기 가구 보내기 운동 회원사 동창

포천가구사업 협동조합(이사장 함두규)은 지난 19일 대강산에서 경기불황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동포에게 가구보내기운동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총 26개 회원사로 이루어진 포천가구사업협동조합은 장식장, 드레스, 장롱, 단스, 콘솔, 의자 등의 가구제품을 콘테이너 3대 분량(7천여만원 상당)에 나눠 평양에 있는 적십자병원으로 보낸다. 적십자 병원에 도착한 가구제품들은 나뉘된 병원이나 학교, 고아원 등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계획이다.

북한동포 가구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 ▶이리링가구(대표 오남석) ▶한일산업(대표 이영지) ▶신안가구(대표



포천가구사업 협동조합은 지난 19일 대강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동포에게 가구보내기운동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 이종철) ▶우리가구(대표 김재영) ▶이리링가구(대표 임재열) ▶가구세상(대표 김인옥) ▶보생가구(대표 김성태) ▶모세리아(대표 김세웅) ▶안목가구(대표 이옥철) ▶송원가구(대표 최홍수) ▶적성포장(대표 이찬우).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상해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면 중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세금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 산업안전사고 예방

### 불량 적재된 타일파렛트 위에서 추락사고

OO공업 옥외 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타일박스에서 비닐덮개를 씌우기 위해 파렛트를 거치한 후 타일박스 상부에 올라가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파렛트 일부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하는 경우 별도의 승강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했고, 화물용 목재 파렛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적재할 화물의 중량등을 고려한 충분한 강도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했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이상 장소의 적재물 위에 올라갈 경우 추락 시 머리보호를 위한 안전모 등의 보호구

는 것을 사용하고, 판재나 각목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제거해 사용금지하며, 높이 2m 이상의 고소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